

# 전북 올해 쌀 생산량 69만톤 예상

### 전국 420만톤 전년 비 2.9%p 감소... 재배면적 2만 610ha · 10a당 생산량 0.4%p 감소 영향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겠지만 평년보다 웃돌 것으로 보여 쌀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높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000톤으로 지난해(432만 7,000톤)보다 2.9% 감소할 전망이다.

전북 생산량은 68만6,000톤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 84만8,000여톤과 충남 77만9,000여톤에 이은 순이다.

세 지역 생산량이 전체의 55.1%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6% 줄어들고 10a당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체 생산량이 전년 대비 12만5,000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재배면적은 79만9,344ha였고 올해는 77만8,734ha로 집계됐다.

건물건축, 택지개발, 타 작물 재배 전환 등을 이유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a당 생산량은 540kg으로 지난해(542kg)보다 0.4% 감소할 전망이다.

날씨가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이나 강수량 등 기상여건이 좋아 낱알 수가 증가했다.

하지만 벼 낱알이 익는 시기인 9월 상순~하순 일조시간과 일교차 감소 등으로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누에술을 이용한 술 부안군은 지난 7일 부안군청에서 혈당 강화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증강하는 누에를 이용한 그라주 시제품 품평회를 주류업체 대표와 실과소장, 농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관려기사 10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23만톤, ▲2014년 424만톤, ▲2015년 433만톤 등 최근 3년간 기상 여건이 좋아 총 생산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0a당 생산량 증가율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이 더 커지면서 총생산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쌀 생산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수요량보다 30만톤 이상 많아 정부는 초과 물량에 대해 올해 안으로 시장에서 격리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남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해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쌀 3만톤 등 쌀 39만톤 매입을 연말까지 매듭짓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벼 매입 자금을 3조원

까지 지원해 민간 분야에서 쌀 추가 매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일정수준 보전하겠다"며 "관련 연 구용역을 바탕으로 쌀 적정량 생산량 안 마련하고 수요를 촉진해서 중장기적으로 쌀 시장 수급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서버 과부하 에러 방치한 탓”

### 이재정 의원 “통상적인 검수·경량화 확인 안해”

지난 12일 경주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은 서버 과부하를 유발하는 에러를 방치하고 기본적인 검수조차 안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웹페이지분석도구를 통해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안전처가 홈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수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사상초유의 지진사태에 두 차례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운사태 발생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웹서버로부터 직접 로딩돼 서버부하를 유발하는 데이터는 약 10MB(메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할 때마다 웹서버로부터 mp3 음악 파일 2~3개를 내려받는 수준의

매우 큰 부하량으로,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해 다운사태를 일으킨 주범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로딩 데이터의 50%를 과도한 용량의 이미지 3장이 차지했다는 점”이라며 “게다가 이 중 2장의 이미지는 사용자의 화면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강제로 로딩돼 필요 이상의 과부하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초보적인 에러로, 외주업체로부터 홈페이지를 납품받은 당사자가 통상적인 검수와 경량화 여부 확인을 실시했다면 반드시 발견됐을 수준의 에러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에러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홈페이지 개발과 검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반증”이라며 “재난정보 단일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구측한 홈페이지가 안전처의 무책임한 검수와 안일한 운영으로 오히려 또 다른 재난의 주범이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

## “어린 물고기 잡지 마세요”

도,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단속

전북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장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도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 기간·금지구역 및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 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위판장 등의 유통·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고민형 기자

## 도내 ‘중고차 매매상 불법행위’ 올해 85건

### 대포차 매매 및 알선·유통 66건, 허위 광고 2건 등...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

경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를 정상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을 허위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적발된 중고차 매매 관련 불법 행위는 총 85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대포차 매매 및 알선·유통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관위·변조 3건, 허위광고 2건, 무등록 영업 2건, 기타 12건 등이었다.

실제 경찰은 지난 9월12일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7월7일 인터넷 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SM7(2015년식) 차량을 92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광고를 믿고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은 구매자들은 헛걸음했다.

이어 경찰은 7일 같은 수법으로 허위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를 끌어 모은 오모(2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뉴스

이들은 지난 8월23일 신타페(2016년식) 차량을 820만원에 판매한다는 배너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구매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들이 찾아 오면 ‘차가 방금 팔렸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비가 와서 침수됐다’고 둘러대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경찰은 중고차 매매상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

## 김생기 정읍시장,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장 현장점검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난 7일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장과 체육시설 설치 예정지에서 현장점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시장은 오전 8시부터 양심목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시공업체관계자들과 작은말고개 도로와 죽림터널 개설 현장,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사업,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시장은 이날 소관부서장으로부터

터 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시공업체 책임자로부터 공사기법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죽림터널 개설공사 시범발파를 철저히 분석하여 터널 본격 발파 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운전자들이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첨단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공사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대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 전북병무청, 하반기 병역사항 신고기관 실태조사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관내 14개 기관에 대해 하반기 병역사항 신고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역사항 실태조사는 신고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신고누락(지연) 방지 및 정확한 병역사항 공개대상자 관리를 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도내 병역사항 신고

기관 31개 중 16개 신고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북병무청은 현재 병역사항 공개 중인 공개대상자의 직위, 직급 등 신상변동사항을 확인해 일제 정비하는 전수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고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이며 신고대상은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 등이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